**<tp09, tp10 >**

1. **연령대별 질문 응답 분포**
2.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Tp09 :**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자신이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이 올라감
3.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Tp10:**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신이 보수적이고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 연령대에 따라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차이가 있음
* 나이를 먹게 됨에 따라 성격이 신경질적이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해 개방적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contid=2021012001412> : 시카고 노스웨스턴대학교 아일린 그레이엄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가 60세 이후에 덜 신경질적으로 변하며, 노년이 될수록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나이가 들수록 유해짐
* 그런데 개방성의 경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60세이상부터)라고 타 연구에 나옴

1.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알아보기:**
2. **교육수준이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Tp09: 교육수준이 올라갈수록 자신이 침착하고 기분이 안정되어 있다고 느낌
*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Tp10: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이 변화를 싫어하고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함
* 교육수준에 따라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차이가 있음
*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경질적이지 않게 되고 새로운 것에 대해 개방적이게 됨
* <http://lltimes.kr/?p=26951> :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불안과 우울증이 적음.
*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149>: 스트레스 및 우울증의 경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수준 및 우울증상군이 높게 나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603723> : 교육수준 및 직업지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이민자 수용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보임. 교육수준은 개인의 규범의식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질적인 집단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크며 공동체 의식수준이 높음.

1. **가족구성원수가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Chart, bar chart, histogram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Tp09:** 가족구성원수가 많을수록 자신이 침착하며 기분이 안정되어 있다고 느낌
* **Chart, bar chart, histogram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Tp10:** 가족구성원 수와 보수적, 창의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가족구성원수가 많을수록 신경질적이지 않게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가족구성원 수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가족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유년기부터 사람간의 관계형성을 일찍 시작하고 그에 따라 애착, 의지할 수 있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주변인들이 많아지며 신경성이 덜 할 수 있다는 생각

1. **혼인상태가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Tp09:** 기혼 > 이혼 > 미혼의 순서로 자신이 침착하며 기분이 안정되어 있다고 느낌
*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Tp10: 이혼 < 기혼 < 미혼의 순서로 자신이 변화를 싫어하며 창의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음
* 결혼 경험이 신경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둘 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기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혼, 미혼에 비해 신경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에 대해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기혼자의 경우 이러한 인간관계가 없는 이혼 및 미혼에 비해 신경성이 덜할 것으로 예상
* 이혼한 사람의 경우 사회의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인 결혼이라는 것을 깨어 버렸다는 측면에서 개방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생각.

1. **유년기 거주지역이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Tp09:**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사람들은 교외, 도시에 비해 자신이 침착하며 기분이 안정되어 있다고 느낌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Tp10:** 교외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시골, 도시에 비해 변화를 싫어하고 창의적이지 않다고 느낌

Chart, bar chart

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 거의 차이는 없으나 약간의 경향성으로 유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사람들이 교외, 도시에 비해 신경질적이지 않고 교외에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이 가장 덜 개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시골의 경우 도시, 교외에 비해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주위 이웃들과의 관계성 형성이 편해 심리적으로 신경성이 덜하다고 생각.

**\*정리: 각각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는?**

|  |  |  |  |  |  |
| --- | --- | --- | --- | --- | --- |
|  | 연령 | 교육수준 | 형제자매수 | 혼인상태 | 유년기 거주지역 |
| Tp09 침착,안정 | O | O | O | O | △ |
| tp02  보수적, 비창의적 | O | O | - | O | △ |

성격특성 중에 환경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도 있고 아닌 특성도 있다. 하지만 비교적 이런이런 특성들은 좀 더 환경적으로 변화하기 쉬워보인다.

종합적으로 5개 유형 중에는 어떻다. 예를 들어 1번 6번 질문이 외향성에 대한 질문이니까 1번 6번 질문을 보면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비슷하다. 외향성에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친화성보다는 외향성이 환경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더 적어보인다. 이런거!!

* 신경성의 경우 교육수준, 결혼상태, 유년기 배경, 가족구성원 수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성이 보이므로 환경적 특성에 의해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개방성의 경우 교육수준, 결혼상태, 유년기 배경(?)에 영향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신경성보다 그 경향이 덜하므로 환경적 특성에 의해 변화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보임

1. **결론**

기존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자라나는 환경적 경험보다 선천적, 유전적 특성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영향을 주는 정도가 강하다.

*쌍둥이 연구:*

*일란성 쌍둥이- 유전자 동일. 입양--> 다른 환경에서 자라남. 이란성 쌍둥이는 유전자를 50%만 공유하고 그냥 같은 날 태어난 것 뿐, 특별하진 않음.*

*결과: 압도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들이 같은 집안에서 자란 이란성 쌍둥이보다 모든 특성에서 유의미하게 비슷함.*

하지만, 우리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성격특성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요인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성격을 결정하는데 선천적인 부분이 크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살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Big5 성격특성은 여러가지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 그것과 관련한 연구들이 많다.

* 취업/고용 상태: FRUYT, F. I. L. I. P., & MERVIELDE, I. V. A. N. (1999). **RIASEC types and big five traits as predictors of employment status and nature of employment.** Personnel Psychology, 52(3), 701–727. <https://doi.org/10.1111/j.1744-6570.1999.tb00177.x>
* 직업 적성 & 소득, 수입: Denissen, J. J., Bleidorn, W., Hennecke, M., Luhmann, M., Orth, U., specht, jule, & Zimmermann, J. (2017). **Uncovering the power of personality to shape income.** <https://doi.org/10.31219/osf.io/h7c6b>
* 승진 여부: Solomon, B. C., & Jackson, J. J. (2014). **The Long Reach of one’s spouse.** Psychological Science, 25(12), 2189–2198. <https://doi.org/10.1177/0956797614551370>
* 이혼율 & 사회적 성취: Roberts, B. W., Kuncel, N. R., Shiner, R., Caspi, A., & Goldberg, L. R. (2007). **The power of personality: The comparative validity of personality traits, socioeconomic status, and cognitive ability for predicting important life outcomes.**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2(4), 313–345. <https://doi.org/10.1111/j.1745-6916.2007.00047.x>

1. **한계점**

* 기술적으로 변수 간의 상관성을 분석해보면 더욱 뚜렷하게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지만 역량 부족으로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국내 자료가 아닐 뿐더러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만의 답변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약하다는 점
* 연령별 및 변인 간의 분포가 고르지 않아 표본에서 비중이 큰 집단의 응답이 많이 반영되었을 수 있음
* 사실 환경적 요인이 사람의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기 위해선 개개인의 성격의 변화를 측정해야 하나 이 같은 조사는 시간이 무척 오래 걸리고 거의 불가능함. 다만 이 데이터로 사람의 성격이 후천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엔 위에서 언급한 방법론과 다르기 때문에 허점이 있을 수 있음
* 개인이 자신을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많이 개입되어 실제 개방적이지 않은 사람이 개방적이라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어 응답의 오류가 있을 수 있음